

“수험표 챙기세요”... 기업들 ‘포스트 수능’ 마케팅

항공·유통업계 등 할인 이벤트 마련
국내·국제선 항공권 최대 25% 할인
통신사, 영화관·음료 이용권 등 혜택
광주신세계, 의류 할인·사은품 제공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항공·유통업계 등 각 기업들이 다채로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수능 마케팅’에 나선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수능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가족을 위한 국내선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탑승일을 기준으로 내년 2월 21일(성수기 제외)까지 제주·김포·부산·광주·무안 등 국내선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인에 한해 정규운임 기준 2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항공권 예매는 다음달 31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앱과 웹에서만 가능하다.

티웨이항공에서는 국내선 25%, 국제선 최대 10% 할인 운임으로 왕복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15일부터 수험생 본인과

동반 1인에게 국내선의 경우 정규운임 대비 20%, 국제선의 경우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통신사들도 자사 멤버십 서비스의 일환으로 수험생 대상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KT는 KT 멤버십 11월 ‘달달혜택’에서 수험생 맞춤 혜택을 제공한다. 전문 배우와 함께 하는 톨플레이 체험인 롯데시네마 ‘라이브시네마’ 이용권,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 구입을 위한 롯데백화점 상품권, 스타벅스 음료, 도미노 프리미엄 피자 온라인 주문 할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이용권 등이 마련돼 있다. 수험생 맞춤 혜택은 2004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KT 멤버십 고객에게 제공되며 모든 혜택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27일까지 올해 수능을 마친 만 17~20세 고객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핸드폰을 구매 개통 후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면 총 20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쿠폰이 포함된 ‘스타벅스 쿠폰팩(무료 음료 쿠폰 2장, 음료1+1 쿠폰 2장)’을 증정한다. 온라인몰 KT닷컴을 통해 핸드폰을 개통하면 아이패드 미니

(1명), 갤럭시 워치7 (5명), 케이스티파이(CASETiFY) 5만원권(100명)을 추첨 증정한다.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상영관에 수험생을 초청해, 올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를 재차 상영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수험 생활동안 문화 생활을 누릴 여유가 없었던 고객을 위한 혜택이다. U+멤버십 VIP 이상 등급 또는 5년 이상 장기고객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수험생 고객은 누구나 U+멤버십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유통업계도 수험생을 겨냥한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광주신세계는 본인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들에게 다채로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MZ세대가 선호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모여 있는 ‘플레이스팟(구 신관)’에 최근 오픈한 ‘노이아’와 ‘르마드’는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 20명에 한정해서 올 가을·겨울 신상품을 최대 30% 할인한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와 ‘브라운 브레스’는 10% 할인에 나선다. ‘와키윌리’에서도 기존 10~30% 할인에 수험생 할인 10%를

추가로 진행한다.

사은품 증정 행사도 열린다. ‘인사일런스’는 30만원 이상 구매고객들에게 수피마 반팔티셔츠를 증정하고, ‘리바이스’는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 중 30명에 한정해서 1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제공한다. ‘LEE’에서는 20만원 이상 구매하면 여권지갑을 받을 수 있다. ‘커버넌트’는 인기 맨투맨 제품을 30명 한정해서 3만9000원에 특가 판매한다.

본관 3층에서는 슈즈와 잡화 브랜드들이 할인 프로모션을 열어 수험생들의 새출발을 응원한다.

‘스타카토’, ‘미소페’, ‘소다’, ‘바이네르’는 30%, ‘닥스 구두’, ‘금강 구두’는 20% 할인에 나선다. MZ세대 고객들이 많이 찾는 ‘슈콤마보나’는 15일부터 24일까지 20% 할인을 진행한다. 같은 층의 ‘루이까조즈’는 30% 할인을, ‘질스튜어트’에서는 핸드백을 20% 할인한다. 구두 및 핸드백 할인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에 한정해서 제공된다.

본관 3층 주얼리 매장에서도 프로모션이 마련된다.

‘다이아미’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들에게 20% 할인에 나선다. ‘제이에스티나’는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수험표 지참 고객들에게 우정링을 19% 할인하며 ‘로이드’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계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프로모션은 수험표를 지참한 본인만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프로모션은 조기종결될 수 있다.

롯데백화점도 수능 맞이 프로모션 ‘BYE 수능, BUY 패션’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날부터 17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점 80여개 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며, 수험표를 지참해 현장 방문 시 최대 20% 추가 할인과 롯데상품권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브랜드로는 ‘무신사 스탠다드’, ‘마리떼프랑소와저버’, ‘강골’ 등이다. 또 20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인사일런스’, ‘유니폼브릿지’ 등의 브랜드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타포린백, 키링, 패딩머플러 등 증정하는 등 수험생들에게 실속 있는 구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익산국토청, 지능형교통정보 디지털 인프라 강화

SK텔레콤 등과 업무협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3일 디지털인프라 강화를 위해 통신사업자(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지능형교통정보체계(ITS) 시설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익산국토청에서 구축한 ITS 인프라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와 공동활용할 수 있게 돼 중복투

자 방지와 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하며, 정부와 통신사업자 간 협력으로 미래 디지털 인프라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익산국토청이 국도변에 구축한 ITS 자가주류 민간이동통신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인프라 중복투자를 방지해 투자 비용절감을 통한 선로구축 확대가 예상된다.

절감되는 비용으로 격오지까지 인프라 구축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와 농

어촌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격차 해소로 전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증진되며, 향후 첨단통신인프라(6G 네트워크 등)를 신속하게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경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익산국토청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의료전문직 ‘메디컬파트너론’ 출시

병원 개업 초기 부담 절감

광주은행은 14일 의사들의 병원 개업 시 초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돕기 위한 맞춤형 신용대출 상품인 ‘메디컬파트너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광주·전남 및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사업장을 운영(예정) 중인 개업 의사(한 의사 포함), 개업 약사, 개업 수의사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며, 전문 진료과목 및 연 매출액, 부동산 여부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시설자금 최저 연 4.37%부터 최고 연 7.60%, 운전자금 최저 연 4.79%부터 최고 연 8.02%다.

우대금리는 개인당 최대 연 1.50%p(포인트)까지 제공 가능하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개업 의사 또는 개업 약사를 대상으로 ‘메디컬파트너통장’

을 출시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해당 상품은 까다로운 조건 없이 매월 말 기준 이통장에 의료보험급여(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현물급여) 또는 카드 가맹점 매출금 입금실적이 존재하면 각종 수수료 면제부터 환율우대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롯데마트 ‘팔도&양반 미역국라면’ 출시 롯데마트·슈퍼에서 미역국을 라면으로 맛볼 수 있는 ‘팔도&양반 미역국라면’을 단독 출시했다. 롯데마트·슈퍼는 ‘팔도&양반 미역국라면’ 단독 출시를 기념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팔도&양반 미역국라면’은 옐로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500원 할인된 가격인 3400원대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재테크 칼럼

한국경제 위협하는 ‘트럼프 재등장’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 각국이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예측과 분석에 분주하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정권이 바뀐다 해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식을 벗어난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 세계 각국에 긴장의 찬물을 뿌리고 있다.

1기 트럼프 정권을 돌아보면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 한국 등 오랜

우방국들 에게도 방위비 등의 부담 문제와 그때까지의 자유무역 기조와는 정반대로 가는 무역장벽을 치는 것을 서슴치 않으면서 전 세계의 블록 경제가 시작되는 단초를 만들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는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를 ‘관세’라고 언급함으로써 각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도 10~20%에 이르는 보편적 관세의 대상국이 될 것이다. 이는 대미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여기에 62조 원에 이

르는 대미 수출 흑자는 트럼프를 자극해서 무역수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칩스법’과 ‘IRA’ 법으로 미국내 한국의 반도체 공장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받던 보조금 혜택을 잃고 주한미군 방위비의 추가 부담 압력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필자도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이 전 세계를 또다시 무역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예측한다. 중국과 유럽 등 각국은 당하고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내수시장을 강화시키며 미국의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하지만 무역 의존도가 80%에 이르고 내수시장이 빈약한 한국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마땅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힘들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무역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대비 환율은 계속 상승해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을 넘어서 버렸다. 약달러

를 지향하는 트럼프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강달러 현상이 더한 것은 앞으로 한국의 불황이 더욱 깊어지고 한국으로의 달러 유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증시 또한 강세를 보이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대표적인 수출품인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의 재등장은 한국경제에 이로운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설상가상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환율 상승 증시 하락 등 불황에 불황을 더하는 전조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가 불안하기만 하다.